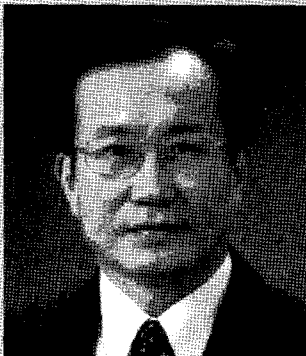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EPR 제도 정착, 폐기물 처리, 재활용 촉진 등 사업 확대



이 치 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은 2002년 8월 공사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 및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등의 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공포됐으며, 지난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자원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국내 폐기물 자원화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명을 자원순환형 사회를 상징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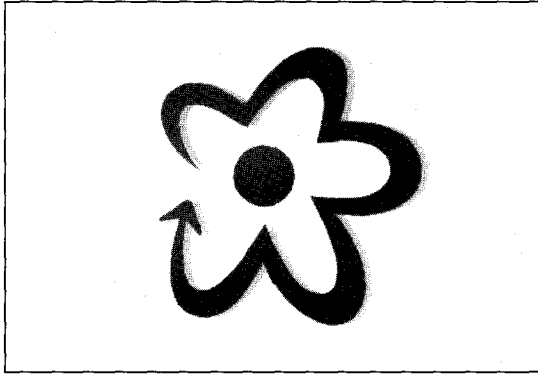
이에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달 1일 본사 대강당에서 환경부장관과 환경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C선포식'과 제2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 기능 혁신방향'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포장폐기물의 사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지원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이치범 사장에게 사명 변경에 따른 계획 및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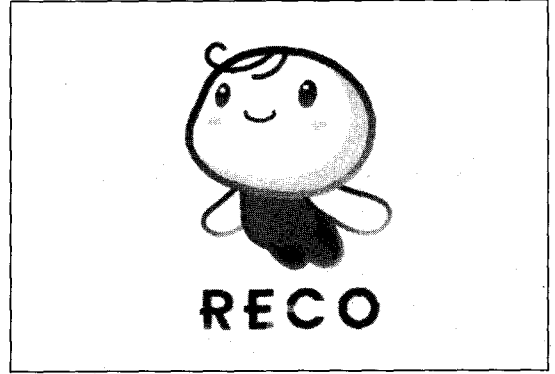
- 편집자 주 -

이치범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자원이사, 경기도 고양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직을 거쳐 지난 해 10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신입사장으로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이치범 사장은 "공사의 핵심기능이 종전의 폐기물 수거·공급 등 자원화중심의 업무에서 EPR 제도 및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



▲ 심벌마크(자연생명적 상징인 꽃과 파란하늘을 모티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의지를 담았다)



▲ 캐릭터(맑고 깨끗한 물방울을 모티브로 천진한 아이를 형상화했다)

영, 재활용산업육성지원,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등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책지원기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감안,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사 명칭인 '자원재생'에서 '자원'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위하여 '환경자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게 됐다는 것.

덧붙여 이 사장은 "‘재생’이라는 용어는 물질의 단순재생이라는 한정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공사의 순환형 자원관리 기능을 대표하지 못해 이를 삭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 탄생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환경자원'은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이를 "환경자원"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소각 등을 줄임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므로

'다시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종래의 개념인 단순 재생자원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이치범 사장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앞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사업범위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의 정착을 위해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과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두 번째로 기존의 '재활용 가능자원'에서 'EPR대상품목에 대한 수거제한'이라는 규정을 신설해 폐타이어, 폐유리병,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및 처리사업을 중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직접사업 분야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 용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치범 사장은 EU, 일본 등에서는 제품의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도입 등 폐기

“친환경 및 기능성 포장재 개발 기대”

물의 사전발생 억제에 중점을 둔 통합제품 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활폐기물에 비해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확대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재활용정책의 중심인 EPR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성보장제를 도입, 지원하고 폐기물의 사전관리 기능 강화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치범 사장은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갈수록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촉진 등 환경산업의 역할이 증가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증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국내 우수 환경산업체의 주요기술 홍보와 함께 해외 환경시장 정보수집·제공, 상담·알선 등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등 폐기물재활용 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활용육성 용자업체, 창업지원업체 등에 ISO 14000에 의한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을 권장하고 환경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에 지원해 나가게 된다.

올해부터 EPR 제도는 필름류 플라스틱 포장

재, 형광등으로 확대된데 이어 내년부터 휴대폰, 오디오가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게 된다.

이치범 사장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포장업계와는 불가분한 관계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포장업계 종사자들이 친환경 포장재 및 기능성 포장재 개발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이 곧 인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 21세기에는 자원부족이 생존을 위한 확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피력한다.

“국내외 경제가 힘든 때에 폐기물 자원 재활용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크다”고 밝히는 이치범 사장.

그는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로의 재탄생을 계기로 공사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자원, 재활용에 대한 명제가 현대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구축을 꿈꾸는 이치범 사장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활약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